

吳又可 溫疫學說의 病因觀에 대한 연구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은석민*

A Study on The Etiology of Wu You-ke(吳又可)'s Epidemic(溫疫) The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osuk University

Eun, Seok-Min

This study is a research on the etiology in Wu Youke's wenyi theory. In regard to the etiology of epidemic disease that had been spread on a very large scale at that time, Wu Youke denied the traditional theory which urged the irregular change of climate as the cause of epidemic disease, and proposed the concept of 'zaqi' which was considered by him to be something that could be the real cause of epidemic disease. And He treated the wenyi disease as something that has the same meaning with wenbing, so his concept on wenbing was basically the thing that treats 'zaqi' as the fundamental cause of wenbing and treats the concept of 'wen(溫)' as an environmental cause that could help activate the virulence of 'zaqi'. Such concept like this was the thing somewhat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etiological theory that considers the change of climate as the principal cause of waigan(外感)-disease, and it must for the most part have been originated from the experience of Wu Youke himself. But this study, in contrast, based on the thing he denied the traditional theory on the irregular change of climate, has been done in the point of view that fundamental concept of his wenyi theory such as 'zaqi' was not only originated from his clinical experience but also from the influence of paradigm shift in the natural philosophy of that time. There had been so much change in cosmology and natural philosophy from the fundamental basis at that time, and the the most principal concept of it was that there always exists irregular faces in the change of nature. Such concept like this got into its stride from about 17th century, and it was expressed in the form of the severe criticism against the traditional natural philosophy. In regard to this, this study has outlined the academic thought of the leading scholars who made a significant progress in such a paradigm shift, and it includes the scholars like Wang Tingxiang, Wang Fuzhi, Hu Wei, Huang Zongxi, who played their role in the time of the latter period of Ming dynasty and the former period of Qing dynasty.

Key Words: Wu You-Ke(吳又可), epidemic, za-qi(雜氣), cosmic theory

1. 서론

吳又可는 明代 말의 의가로서, 그의 溫疫學說은 清代 溫病學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吳又可는 疫病의 대유행을 경험하면서 그

* 교신저자: 은석민,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010-7178-3729, eskmin@mail.woosuk.ac.kr

病因으로 雜氣說을 제기하였으며, 나아가 이 雜氣에 의한 병이 六氣에 의한 병보다 훨씬 많다고까지 주장하였다. 한편 그는 疫病을 溫病의 틀 안에서 논하였는데, 이는 전통적인 傷寒과 溫病의 구분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논해진 것일 뿐 그가 언급한 溫病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溫疫이고 이를 雜氣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寒溫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서의 溫病의 개념과는 그 틀을 달리 하는 것이다. 즉 吳又可가 말한 溫病에서의 ‘溫’의 개념은 그 자체가 직접적인 병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雜氣가 병을 일으키도록 환경적 요인을 제공하는 이른바 誘因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吳又可의 溫疫學說에서 제기된 雜氣說은 病因으로 六氣의 변화를 논하던 전통적인 의학사상과는 확실히 그 틀을 달리 하는 것이었으며, 이런 이유로 그의 주장은 후대에 의학사상의 주류에 놓이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吳又可가 疫病的 유행을 설명하기 위해 제기한 雜氣說은 기후의 이상변화가 곧 疫病的 病因이 된다는 전통적인 학설을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吳又可는 疫病的 발병원인과 관련하여 기후의 이상변화를 배제하는 한편으로 나아가 六氣의 틀을 벗어나 병원성 물질의 의미로서의 雜氣의 개념을 제시한 것인데, 본 연구는 吳又可가 疫病的 病因과 관련하여 六氣의 변화를 부정한 것이 그의 임상적 관찰로부터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六氣의 변화를 기술하는 전통적인 이론체계에 모종의 내적인 한계가 있었고 그것이 결국은 吳又可에 의해 疫病的 병인을 논함에 있어 六氣를 배제하는 결과로까지 나타났다는 관점 하에 진행된 것이다. 즉 기후의 이상변화를 논한다는 것은 계절의 시간적 질서와 같은 어떤 기준에 따르는 것이며 그 기준에 따라 기후변화의 常과 變의 경계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인데, 만약 그 기준이 모호하다면 그에 따라 정해져야 할 기후변화의 常과 變의 경계 역시 모호해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吳又可가 활동하던 당시 즉 17세기 무렵 이후로 전개된 비판적 우주론 및 易哲學이 지니고 있는 사상적 의의에 주목하고자 한다. 물론 吳又可가 그 사상적 흐름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를 통해 吳又

可의 학술사상이 당시의 사상의 흐름과 그 맥을 같이 하는 면이 있었음을 짚어보는 것으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본 문장에서는 먼저 吳又可의 溫疫學說의 학술적 의미를 살펴본 다음 그것과 관련하여 당시의 우주론 및 易哲學의 흐름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吳又可의 溫疫學說

吳又可는 그가 활동했던 당시에 대규모로 유행했던 疫病的 병인을 논함에 있어 전통적인 外感六淫의 설을 배제하고 이른바 雜氣病因說을 주장하였는데,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은 疫病이 주로 계절의 시간적 질서에 맞지 않는 기후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종래의 관념을 벗어난 것이었다. 즉 그는 『溫疫論原病』에서 “病疫之由, 昔以爲非其時而有其氣. …… 余論則不然, 夫寒熱溫涼, 乃四時之常, 因風雨陰晴, 稍爲損益, 假令秋熱必多晴, 春寒因多雨, 較之, 亦天地之常事, 未必多疫也.”, “傷寒與中暑, 感天地之常氣, 疫者, 感天地之厲氣. 在歲有多寡, 在方隅有厚薄, 在四時有盛衰. 此氣之來也, 無論老少強弱, 觸之者卽病, 邪自口鼻而入.” 이라 하여 기후의 寒熱溫涼의 변화에 다소 틀을 벗어남이 있더라도 이는 天地 간의 통상적인 변화일 뿐 疫病的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 한편으로 天地 간의 모종의 厲氣가 疫病的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吳又可가 부정한 疫病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이란 것은 『傷寒論傷寒例』에서 時行之氣라 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傷寒論傷寒例』에서 말한 時行之氣에 의한 발병이란 계절에 맞지 않는 기후변화에 의한 것으로서, “凡時行者, 春時應暖, 而復大寒, 夏時應大熱, 而反大涼. 秋氣應涼, 而反大寒, 冬時應寒, 而反大溫. 此非其時而有其氣, 是以一歲之中, 長幼之病多相似者, 此則時行之氣也.”라 하였고, 또 이는 “氣候亦有應至而不至, 或有未應至而至者, 或有至而太過者, 皆成病氣”라 한 것과도 상통한다¹⁾. 그리고 隋代 巢元方の 『諸病源候論』에서도 “此

1) 『傷寒論傷寒例』에서는 外感病的 발병과 관련하여 四時之氣에 의한 발병과 時行之氣에 의한 것을 구분하였다. 四時之氣에 의한 발병이란 四時的 正氣에 의한 것으로서, “春氣

皆因歲時不和，溫涼失節，人感乖戾之氣而生病，則病氣轉相染易，乃至滅門，延及外人。”이라 하여 『傷寒論傷寒例』의 경우와 같이 기후의 이상변화가 疫病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吳又可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疫病學說을 부정하고 疫病의 원인으로 雜氣의 개념을 제시한 것이며, 이 雜氣는 戾氣, 厲氣, 疫氣 등으로도 불리웠다. 그가 이처럼 疫病에 대한 전통적인 학설을 부정한 것은 일단 그의 실제적인 임상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吳又可는 그가 활동했던 당시에 대규모로 유행하던 疫病을 목도하면서 그것이 계절적 변화의 측면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전통적인 時行之氣 내지 乖戾之氣의 개념으로서의 雜氣, 戾氣 등의 용어를 쓰기는 하였으나 이를 계절 변화의 소산으로 보지 않고 그 자체로 질병을 일으키는 모종의 물질적 존재로 보았으며, 나아가 이 雜氣에 의한 병이 실질적으로 六氣에 의한 병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吳又可의 疫病學說은 外感病을 논함에 있어 六氣의 병인을 배제함으로 인해 外感病의 병인으로서의 寒溫을 논하던 기존의 의학사상과는 분명히 틀을 달리 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대의 온병학의 발전을 크게 촉진시킨 면이 있었다. 이는 비록 吳又可가 外感의 寒溫을 논하는 기존의 학설과는 전혀 다른 틀의 논의를 펼치긴 했지만 그가 疫病을 기본적으로 온열성질환으로서의 溫病의 틀에서 논했기 때문이었으며²⁾, 결국 吳又可의 疫病學說은 『

傷寒論』의 틀을 보충 내지는 벗어나려는 기존의 溫病學說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새로운 차원의 溫病學說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溫病學說에서 가장 주목할 만 한 점은 溫病이 四時에 모두 있다고 주장한 것이며, 따라서 그가 제기한 雜氣의 개념도 溫病의 병인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즉 기존의 溫病의 개념은 그 병인이 아직 상당부분 寒邪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또한 봄철의 병이라는 時令의 개념적 속박 하에 있었는데, 吳又可는 그 개념적 틀을 벗어나 溫病을 병인 면에서 전적으로 온열성질환으로 간주하고 그 발병시기도 사계절 모두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溫疫論傷寒例正誤』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十二經絡과 奇經八脈은 營衛氣血이 온몸에 분포되어 百骸를 영양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天真元氣가 퍼져 있지 않는 곳이 없으며, 그렇지 않다면 麻木不仁의 증상이 나타난다. 조화의 기틀은 일각이라도 멈춰질 수 없으며, 멈추어지면 氣血의 순환이 뒤집혀지고 어지럽게 된다. 그런데 風寒暑濕의 邪氣는 몸 안의 營衛之氣와 그 세가 양립할 수 없으니, 일단 邪氣의 침범이 있으면 질병이 생기게 되며, 만약 질병이 물리쳐지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거나 죽게 된다. 앞에서 논한 바, 겨울철에 심한 추위에 상하여 바로 발병하는 경우는 傷寒이라 하고 바로 발병하지 않으면 봄이 되어 溫病으로 변화하거나 여름이 되어 暑病으로 변화한다. 한편 風寒에 상한 바가 가벼우면 感冒라 하고 심하면 傷寒이라 하는데, 즉 感冒라 하여 風寒에 상한 바가 가장 가볍다 할지라도 頭疼身痛, 四肢拘急, 鼻塞聲重, 痰嗽喘急, 惡寒發熱 등의 증상이 있으며, 風寒에 상한 후 바로 발병하는 것이 邪氣가 숨어 있을 수는

溫和, 夏氣暑熱, 秋氣清涼, 冬氣冰冽, 此則四時正氣之序”, “傷于四時之氣, 皆能爲病”이라 하면서 四時之氣가 모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특히 傷寒에 대해서는 “겨울철에는 찬 기운이 심하여 만물이 깊이 움츠러드니 굳지는 固密한 즉 찬 기운에 상하지 않으며, 찬 기운에 감촉된 것을 傷寒이라 한다(冬時嚴寒, 萬類深藏, 君子固密, 則不傷于寒, 觸冒之者, 乃名傷寒耳.)”라고 하면서, 아울러 “傷寒爲毒, 最成殺厲之氣”라고 하였다. 그리고 溫病, 暑病에 대해서는 傷寒이 ‘不卽病’한 경우로 보았다.

2) 吳又可. 溫疫論正名.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繁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吳又可의 『溫疫論正名』에서 溫病과 溫疫, 風溫, 濕溫 등을 모두 같은 온열성질환으로서의 溫病의 범주로 설명하였으며, 아울러 그가 그의 저서를 『溫疫論』이라 하여 ‘溫病’의 명칭을 쓰지 않고 ‘溫疫’의 명칭을 쓴 것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夫溫者熱之始, 熱者溫之終, 溫熱首尾

一體, 故又爲熱病, 卽溫病也. 又名疫者, 以其延門闔戶, 如徭役之役, 衆人均等之謂也. …… 此外, 又有風溫濕溫, 卽溫病挾外感之兼證, 各各不同, 究其病則一. 然近世稱疫者衆, 書以瘟疫者, 不遺其言也.”)

없는 것이다. 하물며 겨울철에 심한 추위에 상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닌데 도리어 邪氣가 잠복해 있다가 시일이 지나 발병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邪氣를 감수하여 바로 발병하고, 어떻게 邪氣를 감수하여 바로 발병하지 않는 것인지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슨 이유로 邪氣를 감수하여 바로 발병하는 경우에 깨질듯 한 두통과 몽둥이로 맞는 듯한 身痛, 惡寒, 項強, 불로 달구는 듯한 發熱, 喘, 嘔 등이 나타나고 심하면 發瘧, 六脈疾數, 煩躁不寧이 나타나며 이후로 전변되는 것이 매우 다양하여 제때 다스리지 못하면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가? 또한 무슨 이유로 邪氣를 감수하여 바로 발병하지 않는 경우 邪氣를 감수한 직후에는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봄여름이 되기까지 邪氣가 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가? 邪氣를 감수한 후 증상이 발현하기 전까지 음식과 기거가 정상적이고 神色聲氣에 조금의 변화도 없으며, 증상이 발현해서는 그 병세가 傷寒에 비해 조금도 덜하지 않다. 하물며 風寒에 상함은 邪氣가 肌表를 통해 들어오지 않음이 없으니 상하는 부위가 모두 營氣와 衛氣이고 감수한 것은 모두 風寒으로 같은데도 어찌 하여 어떤 사람은 아무 감각이 없이 邪氣가 체내에 藏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민감하여 邪氣를 감수한 즉시 발병하게 되는가? 발병의 근원이 모두 寒邪를 감수한 것으로 같으나 양자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도 어찌 그에 대한 說法이 없는 것인가? 마땅한 說法이 없는 바에야 溫病, 熱病의 병인이 風寒에 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寒毒이 肌膚 사이에 藏한다고 하는데, 肌는 肌表이고 膚는 皮의 얇은 부분으로서 그 사이의 어떤 부분도 營衛之氣가 통행하지 않는 곳이 없으니, 즉 조금이라도 風寒에 의해 感冒가 있으면 바로 발병하게 되는 것이다. 하물며 겨울철에 심한 추위에 의한 殺厲之氣

를 피부의 가장 얇은 곳에서 감수한 후 그 邪氣가 가만히 숨어 있을 수 있겠는가? 앞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寒邪가 肌膚에 藏하여 있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客邪를 다스리는 大法은 表裏를 분명히 아는 것인데, 이른바 腑에 들지 않았다 하는 것은 邪氣가 經에 있는 것으로서 汗法을 쓸 수 있으며, 腑에 들어간 후에는 邪氣가 裏에 있는 것으로서 下法을 쓸 수 있다. 진실로 寒毒이 肌膚에 藏해져 있다면 비록 시일이 지나서 발병하더라도 邪氣가 여전히 表에 있을 것이므로 그 치법은 發散을 통해 邪氣가 發汗과 함께 풀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후세에 溫熱病을 치료하면서 만약 肌膚의 表에 있는 邪氣를 치료한다는 생각으로 일률적으로 發散을 시킨다면 이는 무익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다.

무릇 병에는 먼저 병인이 있을 후 비로소 병증이 있으므로 병인과 병증을 함께 참고한 이후에야 비로소 병명을 정할 수 있으며, 脈을 살핀 이후에 가히 치료를 논할 수 있다. 만약 傷寒과 中暑가 각기 病邪의 개념을 통해 병명을 정한 것이고 지금의 熱病이라 하는 것이 병증의 개념을 통해 병명을 정한 것이라면 앞에서 말한 暑病은 도리어 熱病이라 불리는 것만 못한데, 이는 다소 모호한 점이다. 만약 暑病이라 명명하고 暑氣가 病邪가 된다 할 때 한여름의 暑氣를 감수한 것이 아니라면 暑病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暑病이라 하면 香薷飲으로 치료하는 병증에 불과한데 양자가 어찌 서로 섞일 수 있겠는가?

무릇 客邪에 의한 병증은 邪氣를 감수함이 중하면 즉 병이 심하고 그 열도 또한 심하며, 邪氣를 감수함이 가벼우면 병도 가볍고 그 열도 역시 미약한 것이다. 열의 미약함과 심함은 邪氣를 감수함의 경중에 따른 것이다. 2, 3월 또는 8, 9월에도 병이 중하여 大熱이 그치지 않으면서 적절치 못한 치료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5, 6월이라도

병이 가볍고 열이 미약하여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다. 무릇 溫病은 사계절에 모두 있는 것이며, 다만 仲夏에 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고 봄가을이 그 다음이며 겨울철이 또 그 다음일 뿐으로서, 時令에 따라 병의 다소를 나눌 수 있을 뿐 時令에 따라 열의 경중을 나눌 수는 없다.”³⁾

이상의 내용에서 吳又可는 傷寒의 개념에 대해서는 「傷寒例」의 관점을 그대로 따라 겨울철에 寒邪에 상하여 바로 발병한 것이라는 관점을 지녔으나, 溫病

3) 吳又可, 溫疫論傷寒例正誤.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繁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按十二經絡, 與夫奇經八脈, 無非營衛氣血, 周布一身而營養百骸. 是以天真元氣, 無往不在, 不在則麻木不仁. 造化之機, 無刻不運, 不運則顛倒僕絕. 然風寒暑濕之邪惡, 與吾之營衛, 勢不兩立, 一有氣干, 疾苦作矣, 苟或不除, 不危即斃. 上文所言冬時嚴寒所傷, 中而即病者爲傷寒, 不即病者, 至春變爲溫病, 至夏變爲暑病. 然風寒所傷輕則感冒, 重則傷寒, 即感冒一證, 風寒所傷之最輕者, 尙爾頭疼身痛, 四肢拘急, 鼻塞聲重, 痰嗽喘急, 惡寒發熱, 當即爲病, 不能容隱. 今冬時嚴寒所傷, 非細事也, 反能藏伏過時而發者耶? 更問何等中而即病? 何等中而不即病? 何等中而即病者, 頭痛如破, 身痛如杖, 惡寒項強, 發熱如炙, 或喘或嘔, 甚則發癡, 六脈疾數, 煩躁不寧, 至後傳變, 不可勝言, 倉卒失治, 乃致傷生? 何等中而不即病者, 感則一毫不覺, 既而延至春夏, 當其已中之後, 未發之前, 飲食起居如常, 神色聲氣, 纖毫不異, 其已發之證, 勢不減于傷寒? 況風寒所傷, 未有不由肌表而入, 所傷皆同營衛, 所感均系風寒, 一者何其蒙懵, 中而不覺, 藏而不知. 一者何其靈異, 感而即發, 發而根屬同源而異流, 天壤之隔, 豈無說也? 既無其說, 則知溫熱之原, 非風寒所中矣. 且言寒毒藏于肌膚之間, 肌爲肌表, 膚爲皮之淺者, 其間一毫一竅, 無非營衛經行所攝之地, 即感冒些少風寒, 尙不能稽留, 當即爲病, 何況受嚴寒殺厲之氣, 且感受于皮膚最淺之處, 反能容隱者耶? 以此推之, 必無是事矣. 凡治客邪大法, 要在表裏分明, 所謂未入于腑者, 邪在經也, 可汗而已. 既入于腑者, 邪在裏也, 可下而已. 果系寒毒藏于肌膚, 雖過時而發, 邪氣猶然在表, 治法不無發散, 邪從汗解. 後世治溫熱病者, 若執肌膚在表之邪, 一投發散, 是非徒無益, 而又害之矣. 凡病先有病因, 方有病證, 因證相參, 然後始有病名, 稽之以脈, 而後可以言治. 假令傷寒中暑, 各以病邪而立名, 今熱病以病證而立名, 上文所言暑病, 反不若言熱病者, 尙可模糊, 若以暑病爲名, 暑爲病邪, 非感盛夏之暑, 不可以言暑病. 言暑病, 乃是香薷飲之證, 彼此豈可相混? 凡客病感邪之重, 則病甚, 其熱亦甚. 感邪之輕, 則病輕, 其熱亦微. 熱之微甚, 存乎感邪之輕重也. 二三月及八九月, 其時亦有病重, 大熱不止, 失治而死者. 五六月亦有病輕熱微, 不藥而愈者. 凡溫病四時皆有, 但仲夏感者多, 春秋次之, 冬時又次之, 但可以時令分病之多寡, 不可以時令分熱之輕重也.”

과 暑病 등에 대해서는 그것이 겨울철에 寒邪에 상한 후 일정한 기간을 거쳐 봄여름에 발병하게 된다는 전통적인 관점을 부정하였다. 즉 溫病과 暑病 등은 風寒의 邪氣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인데, 이런 관점을 통해 吳又可는 溫病과 暑病 등의 溫熱病을 진정한 의미의 온열성 질환으로 인식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溫病이 四時에 모두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기존에 溫病의 개념을 규정지었던 時令적 요소의 틀을 부수었다. 吳又可 이전의 溫病의 개념은 사실상 溫熱之邪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봄철이라는 時令의 틀 안에서 보려는 면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吳又可 이전에 溫病에 대해 주목할 만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던 宋代의 郭雍의 경우, 그는 봄철에 발생하는 外感熱病은 伏氣, 新感, 時邪 등을 막론하고 모두 溫病이라 했는데, 이는 봄철에 風寒에 상한 경우도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즉 郭雍은 그가 제시한 溫病의 개념이 『傷寒論』에서 말한 “發熱而渴, 不惡寒” 한 특징을 벗어나는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류의 병인에 의한 것이든 봄철에 발병한 경우는 봄철의 溫氣를 따라 溫病이라 했던 것이다.⁴⁾ 이런 면은

4) 郭雍이 제시한 溫病의 개념은 사실상 溫病에도 惡寒이 있다는 기술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溫病에 表證으로서의 惡寒이 있다는 기술은 宋代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다만 그 병증이 나타나는 것이 봄철에 국한되어 있었고 병인도 外感風寒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朱肱은 『類證活人書』에서 “夏至以前發熱惡寒, 頭疼身痛, 其脈浮緊, 此名溫病也. 春月傷寒謂之溫病, 冬傷于寒, 輕者夏至以前發爲溫病.”이라 하였는데, 이는 溫病에 惡寒의 表證이 있다고 한 최초의 기술로서 이로부터 外感의 寒溫관계가 복잡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즉 이와 같은 朱肱의 설명은 溫病의 개념에 대해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伏寒化溫’의 관점을 지닌 것인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전통적인 관점과 다르게 溫病에 惡寒이 있다고 한 것이다. 이후 南宋의 郭雍은 溫病에 惡寒이 있다는 朱肱의 관점을 받아들이며서 辛感溫病의 개념을 제시하게 되었는데, 그는 『傷寒補亡論』에서 “가령 봄철에 風寒에 감촉되어 發熱, 惡寒, 頭痛, 身痛 등이 있는 것은 傷寒이 아니고 疫氣도 아니니, 봄철의 溫氣를 따라 溫病이라 하지 않고 어찌 달리 이름할 수 있겠는가? 여름철의 병 가운데 겨울에 감촉됨으로 인한 것을 熱病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暑病, 喝病이라 하는 것과도 같으니, 봄철의 경우도 또한 이와 같은 이치이다(假令春時有觸冒, 自感風寒而病發熱惡寒頭痛身痛者, 即非傷寒, 又非疫氣, 不因春時溫氣而名溫病, 當何名也? 如夏月之疾, 由冬感者爲熱病, 不由冬感者爲暑爲喝, 春時亦如此.)”라고 하였으며, 이로부터 郭雍은 봄철에 발생하는 外感熱病은 伏氣, 新感, 時邪를 막론하고 모두 溫病이라 하였다. 이처럼 傷寒과 溫病의 구분이 단지 발병한

傷寒과 溫病의 개념을 보는 시각에 있어 실질적인 증후상의 특징보다는 발병한 계절에 따라 병명상의 寒溫을 나누는 것으로서, 吳又可의 시각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편 吳又可는 비록 溫病이라는 병명을 쓰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傷寒과는 다른 溫熱性질환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며, 실질적으로 그의 주장이 지니는 더 핵심적인 요지는 병인을 논하는 데 있어 계절의 시간적 질서에 따른 寒溫의 변화를 중심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점은 전통적인 의학사상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에서 病因을 논한 상당히 급진적인 성격의 것이며, 이에 따라 본 문장에서는 吳又可의 관점이 그의 임상적 관찰에 기초한 것임을 넘어 그가 활동할 당시의 자연관의 변화와의 모종의 연계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吳又可 당시의 자연관의 변화란 明代 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자연관 내지 우주론의 변화와 그를 체계화시킨 易哲學 상의 변화를 말하는데, 본문장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계절의 시간적 질서를 엄격한 경계의 획정이 明代 말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비판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즉 앞에서 논했듯이 吳又可의 疫病의 병인이 계절의 시간적 질서에 맞지 않는 기후의 이상변화라는 전통적인 관점을 부정하였는데, 이는 다른 한편으로 계절의 시간적 질서를 엄격하게 획정하여 논할 수 없다는 것과 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계절의 시간대를 엄격하게 나누지 않는다면 기후의 이상변화라는 개념도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한 즉 吳又可의 학술적 관점과 관련하여 당시의 우주론 내지 易哲學의 주된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吳又可가 清代에 크게 발전했던 溫病學의 본격적인 맥을 연 것이 그의 임상경험과 아울러 당시의 사상적 경향과 그 맥을 같이 하는 면이 있었음을 논하고자 한다.

3. 전통적 우주론의 象數學的, 相

계절의 차이에 의해 정해지고 증후 상의 특징을 따르지 않은 것은 傷寒과 溫病 간의 관계가 복잡해지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曹東義, 杜省乾, 溫疫論譯注.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4. pp. 363-364.)

關的 思惟

明末清初에 걸쳐 진행되었던 우주론의 변화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그 이전의 전통적인 우주론의 주된 사상적 특질을 살펴보면 그 어떤 점이 후대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이는 吳又可에 의해 부정된 疫病에 대한 전통적인 학설 즉 『傷寒論·傷寒例』 등의 관점이 전통적인 우주론의 사유방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서, 『傷寒例』나 『內經』, 『難經』 등의 고전의 서들이 지니는 사유방식이 동시대의 사상계에서 주류의 위치에 있었던 상수학적, 상관적 사유의 틀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고대의 상수학적, 상관적 사유는 세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 조화, 비율, 감응 등의 개념을 매우 중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유양식은 인체, 국가체제, 천체 등과 같은 우주의 여러 영역들 내지는 그 안의 다양한 실체들 사이의 우주적 감응을 전제로 하는데, 즉 서로 감응하는 실체들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서로 같은 부류이며, 이로 인해 특정한 측면에서 서로 간에 감응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상수학적 사유체계가 정립되고 그것이 사상계의 주도적인 위치에 놓였던 漢代에 들어 『淮南子』, 『春秋繁露』, 『黃帝內經』, 『白虎通義』 등의 문헌들에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감응 개념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체계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漢代의 우주론에서는 사회적, 지적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인간과 우주 사이의 상관관계가 철학적으로 체계화되기까지 이르렀다. 예를 들어 班固가 『白虎通義』에서 인간 통치의 정치체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상수학적 상관관계를 적용했던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이런 면에서 五行說 역시 그 사유방식의 틀 안에서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자리하였다. 漢代의 우주론은 여러 가지의 시간적 주기 즉 계절적 주기나 인간사의 주기 등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이 五行說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 五行說을 통해 인간과 사회의 변화들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많은 면에서 건강부회함을 면하지 못하는 면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五行을 사계절 내지 네 방위와 대응시키려 한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처럼 4로 표현되

는 분류개념과 五行의 5의 분류개념을 대응시키는 문제는 실제로 漢代 우주론의 큰 난점이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漢代 우주론은 五行에 대해 이를 주로 수비학적인 방식으로 사계절과 연관시키면서 五行의 개념을 새롭게 설정하였는데, 즉 五行 중 土의 위상을 특별하게 다루면서 土를 다른 네 개의 위상들과 구별하여 물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놓았던 것이다. 특히 班固는 『白虎通義』에서 土와 관련하여 수비학적으로 대칭을 이루도록 五行의 또 다른 배열방식을 제시하였는데, 이 또한 土를 다른 위상들에 비해 우주론적으로 보다 근원적인 것으로 보는 방식이었다. 즉 木·火·金·水가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土가 필요하다는 원리 하에 사계절의 기간에서 각각 18일씩을 빼 土에 배당하는 것이었다. 그럼으로써 $18 \times 4 = 72$, $72 \times 5 = 360$ 이 되기 때문에 1년의 날수가 五行에 똑같이 배분될 수 있었다.⁵⁾ 그러나 이 방식도 1년의 날 수 중의 나머지 5와 1/4일을 설명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白虎通義』에서 처음 제시되고 唐代의 대학자 孔穎達에 의해 계승된 이런 수비학적 방식은 4단위의 분류와 5단위의 분류를 자연스럽게 대응시키는 문제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해결책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漢代 이후에도 사계절을 五行과 대응시키는 문제는 계속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강구되었다.⁶⁾

한편 漢代 우주론의 상관적 사유체계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漢代 역학의 주류를 이루었던 상수학적 역학체계이다. 특히 孟喜, 京房에 의해 체계화된 卦氣說은 漢代 象數易學의 주류를 형성한 것으로서, 易의 형상인 卦와 曆法의 주기들 사이에 상호감응의 관계가 있다는 수비학적 관념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漢代의 象數易學은 한마디로 말해 역학을 陰陽五行化한 성격의 것이었는데, 易

學이 본래 『周易』 古經의 占筮體例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형성, 발전된 것이라는 易學 본래의 발전과정에서 볼 때, 漢代의 象數易學은 『易傳』에서 비록 占筮의 형이상학적 哲理를 당시의 새로운 天道觀과 결합하여 占法의 이론적 구조를 밝혔지만 실제적 조작과정을 거치는 筮法에 있어서는 아직 체계화된 방법이 형성되지는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당시의 새로운 天道觀이란 고대사상의 최고범주였던 ‘天’의 개념이 외재적, 절대적, 불가해한 神性的 실체로부터 점차 내재적 구조를 지니며 만물을 안고서 특정한 방식으로 체현하는 궁극적 실재라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실제적인 天道의 이해가 더욱 天道의 자연변화규율에 대한 인식과 파악에 기반을 두게 된 것을 말한다. 이런 기초 위에서 본래 神意를 헤아리는 데 쓰였던 卜筮는 점차 이성적 인식을 따르게 되었고, 天人之間의 교통에 있어 모두가 공유하는 이론적 기초에 의한 방법 즉 새로운 점술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런 면에서 漢代의 象數易學은 『易經』의 卦의 순서구조에 변화를 주고 여기에 律曆之學을 더하여 陰陽之氣의 변화에 기초하여 陰陽五行의 구조적 변화를 헤아림으로써 ‘一陰一陽’의 易道(天道)를 체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孟喜, 京房의 卦氣說은 그 영향이 가장 큰데, 卦氣說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天文曆法, 陰陽五行, 人事災異의 占測을 일체로 하는 역학과 점술의 통일적 체계를 이룩했다는 것이다. 특히 상관적 사유체계들의 가장 주요한 목적이 인간의 몸, 국가체제, 지리적 통치구역과 같은 인간 세계의 여러 측면들을 당시에 시간과 공간의 근본적인 질서를 바라보는 매개체였던 천문학적 하늘의 구조와 상수, 그리고 주기들로 표현된 우주의 패턴과 체계적으로 연관짓는 것이었음을 생각해 볼 때, 卦氣說은 漢代 象數易學의 핵심적인 사유가 잘 반영된 것이었다. 초기의 卦氣說은 제일 먼저 西漢代의 孟喜의 『孟氏周易章句』(佚)에 보인다고 한다. 즉 『新唐書曆書』에 의하면 十二月卦가 『孟氏章句』에 나온다고 되어 있다. 이로 볼 때 孟喜의 卦氣說의 핵심적 내용은 陰陽之氣의 消長으로 『周易』을 해석하고, 『周易』의 卦象으로 1년 절기의 변화를 해석하면서 이로써 人事의 길흉을 추측하는 것이다. 陰陽의 消長과 사계절

5) 清, 陳立, 白虎通疏證卷四五行, 臺北, 中華書局, 1997, pp. 168-190. “……土在中央, 中央者土, 土主吐含萬物, 土之爲言吐也, ……土所以不名時者, 地, 土之別名也, 比於五行最尊, 故不自居部職也. ……木王所以七十二日何? 土王四季各十八日, 合九十日爲一時, 王九十日, 土所以王四季何? 木非土不生, 火非土不榮, 金非土不成, 水非土不高, 土扶微助衰, 曆成其道, 故五行更王, 亦須土也, 王四季, 居中央, 不名時.”

6) John B. Henderson 저. 문중양 역. 중국의 우주론과 청대의 과학혁명. 서울, 소명출판, 2004, pp. 26-28.

의 寒暑의 변화의 내재적 관계에 대해서는 漢代에 이미 상당한 인식이 쌓여 있는 상태였고, 아울러 曆法 가운데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었다. 曆法은 천지운행의 도와 관계가 가장 밀접한 전문적인 지식계통으로서, 陰陽五行의 사상이 자연의 변화를 헤아리는 기본적인 이론으로 자리하였던 시대에 曆法의 수리적 모형은 陰陽五行적인 해석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曆法과 陰陽五行이론이 서로 융합하는 과정에서 曆法의 수리적 모형은 陰陽五行의 수량화에 가장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卦氣說은 天文曆法의 지식이 융합된 일종의 새로운 상수이론인데, 이는 象數易學의 두 기반인 卦象과 著數의 外延에 유효한 것이었고, 易道를 관념적인 것으로부터 주기적인 천지운행과정의 구조적 도식에 기반을 두도록 변화시켰다. 이로부터 通天의 수단으로서의 易占은 비로소 一事一應의 具象적인 분석으로부터 구조화된 형태로의 ‘道の 數理적 분석’으로 발전한 것이다.⁷⁾ 孟喜의 설은 후에 京房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는데, 京房 역시 陰陽의 두 기운의 승강변화를 卦爻象의 변역의 근원인원으로 여겼다. 또한 이후 卦氣說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爻辰, 納甲 등의 설 역시 실질적으로 모두 易道の 구조를 陰陽五行化시키는 것이었다. 京房은 八卦 및 六十四卦를 세계가 운행하는 기본모형으로 보고 세계가 변화하는 기본적 법칙인 陰陽二氣의 운행과 五行之氣의 生克이 『周易』의 八卦, 六十四卦, 384爻 가운데 표현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는 西漢代 이래의 자연철학을 더욱 체계화한 것으로서, 비록 京房은 『周易』의 筮法을 占候之術로 끌어들이 天人感應의 다소 의도적인 사고를 뒷받침했지만, 그가 제시한 상수모형은 후대의 철학자들이 세계변화의 보편적 모형을 탐색하는 데 대단한 영향을 미친 것이었다. 한편으로 京房 등과는 약간 다른 노선이기는 하지만 揚雄 역시 易으로부터 추론된 상징적인 수비학적 체계를 천문학의 상수들과 일치시키려는 시도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太玄經』은 이런 의도에서 저술된 것으로서, 卦氣說과 納甲說 등에 기반한 수비학적 조작보다 더욱 정교한 계산들을 담고 있었으며 그 체계는 宋代의 司馬光 같은 후대의

사상가들에게 이어졌다.

이후 孟喜, 京房의 상수이론은 더욱 발전하여 최종적으로 『易緯』에서 종합되었다. 『易緯』는 漢代에 經書를 陰陽五行적으로 해석했던 緯書의 일부분으로서, 언어의 형식적인 면에서 볼 때 『易緯』는 「易傳」에서 易을 해석하는 형식을 모방하는 면이 많았다. 그러나 일부 다른 각도에서 『周易』을 해석하는 면이 있었는데, 즉 그 이론적 기초가 주로 「易傳」, 孟喜와 京房의 易學사상 및 今文經學의 神學目的論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天人之道를 점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도식구조를 기본형식으로 하는 상수점술이론으로 발전하였다. 이런 이론들은 여러 구조적 모형을 낳았는데, 四正四維說, 六日七分說, 九宮數說, 九卦主歲術 등이 그것이다. 『易緯』에서는 八卦를 四正四維, 太一九宮, 節氣, 占星 등과 결합시켜 八卦卦氣의 점술을 만들었고, 六十四卦를 1년 중의 매달, 절기와 결합시켜 卦氣 및 風雨寒暑를 헤아리는 점술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易緯』 역시 「易傳」 중의 새로운 天道에 기반을 두고 六十四卦를 새롭게 조합함으로써 되도록 漢代에 유행하던 天文曆法 등의 測天之學과 결합시킨 것이다. 이후 鄭玄, 荀爽, 虞翻 등이 역학을 깊이 연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달리 새로운 것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易緯』에서 극치에 이른 天道의 도식적 구조가 역학 내지는 전체적인 사상문화에서 점차 구조화됨으로써 일종의 공식적인 사상적 배경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록 漢代 이후 魏晉시대에 이르러 玄學의 흥기로 象數易學이 퇴조하면서 易道の 이념적 건설이 형식으로부터 내용 즉 본체의 문제로 복귀하는 면을 보이는 하였으나 이후에도 여전히 역학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漢代 상수학의 사상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五行체계가 그러했듯이 象數易學의 체계 안에서도 易의 내용을 다른 범주들과 연결시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으며 다소 의도적인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 漢代 우주론은 易의 형상과 하늘의 형상이 상호 대응한다는 관념을 바탕으로 易의 형상인 卦의 조작으로부터 달의 수라든가 1년의 날수와 같은 상수뿐만 아니라 천문학적 상수 까지도 추론해 내었는데, 예를 들어 윤달의 주기 19

7) 倪南, 象數易道論綱, 周易研究, 2003, 제4期, pp. 34-36.

와 같은 경우 19라는 숫자는 「繫辭傳」에서 주어진 음수 10과 양수 9의 합이었다. 또한 漢代의 저명한 학자들인 孔安國(B.C.156-B.C.74), 劉歆(B.C.46~A.D.23), 馬融(79-166) 등은 河圖를 『周易』의 八卦와 연관지었고 洛書는 『書經洪範』의 九疇과 연관지었으며, 이와 같은 연관관계를 통해 漢代의 학자들은 河圖와 洛書의 기원에 대한 물음을 해결하는 열쇠가 가장 숭배받는 유가의 두 경전에 있음을 피력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상관적, 상수학적 사유체계는 漢代 이후로 다소 쇠퇴의 길을 걷기도 하였으나 宋代에 周敦頤, 邵雍 등과 같은 신유학자들에 의해 다시금 圖書之學과 先天易學 등의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었으며, 이는 고대의 사유체계의 전통을 다시 강화하면서 그 이후의 사상계에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4. 明末清初의 비판적 우주론과 易哲學

1) 전통적 우주론에 대한 회의 -엄격한 경계의 획정에 대한 비판

상술한 고대로부터의 상수학적, 상관적 사유체계의 기본개념들은 후대에 점차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비판이 많은 수의 저명한 학자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행해지기 시작한 것은 17세기에 들어서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판적 논의는 사실상 그 사유체계가 정립된 시기인 後漢代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王充은 五行의 위상이 相生과 相克의 원리에 따라 순환한다는 믿음을 비판했는데, 이는 우주적 氣가 단일하며 다섯 가지로 분리될 수 없다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후 南北朝시기의 王弼도 상수학적 역학을 바탕으로 한 우주론을 부정한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이후 상수학적 사유체계에 기반한 우주론이 가장 큰 비판에 직면했던 것은 새롭게 발전해 가는 천문학 지식과 기존의 우주론상의 개념의 괴리에 의한 것이었다. 천문학 지식과 우주론적 개념 사이의 괴리는 이미 일찍이 漢代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즉 漢代의 曆算家들은 물리적 천체의 운동과 주기가 수비학적으로 구성된 간단한 순환적 모델을 엄밀히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천체운동과 천문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복잡한 모델들이 표면적으로 무력해지자 결국 後漢代의 曆算家들은 우주 내에서의 불가사의한 사건이나 예측할 수 없는 변칙들이 영구적인 曆法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曆法상의 계산의 부정확함은 曆算家의 기술부족이라기보다는 예측할 수 없이 변화하는 우주적 패턴 자체의 본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曆法과 실제의 우주 사이의 이러한 불일치는 처음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나중에 부정확함이 드러날 때에는 그 오차가 상당히 누적되어 커졌을 때이다. 이로 인해 改曆의 필요가 대두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천문상수와 주기들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이전의 상관적 사유의 수비학을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이러한 수비학적 원리를 포기하고 예전의 마지막 改曆 이후에 계산치와 관측치 사이에 벌어진 오차비율을 경험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漢代 이후로 曆算家들은 점점 曆法체계는 천체운동을 실제 그대로 반영할 수 없으며 천체운동에 대한 인위적인 근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우주에는 다양한 실체들 사이에 규칙성, 평형, 그리고 조화 등이 구현되고 있다는 생각을 견지했던 漢代의 우주론 연구자들의 세계상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이처럼 漢代의 사상가들이 그들의 우주론적 도식을 당시의 천문역법 지식과 융합하려 하고, 동시에 漢代의 曆算家들도 우주론적 기초에 기반을 둔 수비학을 참고하여 曆法의 상수와 주기 계산들을 정당화하려 했던 노력은 漢代 이후로 천문학이 발전함에 따라 그러한 지식과 계산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임이 점차 밝혀지게 되었다. 천문학의 진보는 논리적으로 漢代 우주론에 대한 비판을 낳았으며, 아니면 적어도 후대의 우주론자들과 曆算家들로 하여금 새로운 천문학 지식과 부합하도록 정형화된 우주론을 수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漢代 이후의 曆算家들은 관찰에 의해 천체운동의 불규칙성을 발견했으면서도 종종

漢代의 우주론 연구자들만큼이나 거리낌 없이 기존의 우주론을 끌어안았다. 그들은 경험적 관찰에 대한 발견을 통해 과거의 정형화된 우주론을 본격적으로 비판할 만한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이 점은 송대에 들어 歐陽修(1007-1070)나 蘇洵(1009-1066) 같은 학자들에 의해 漢代 우주론의 근본양식이 매우 직접적으로 공격받았을 때도 결국 마찬가지로, 당시의 학자들은 특히 문헌학적인 면에 있어 고전의 핵심적인 내용을 고대 이후로 흘러들어간 이질적인 것들과 명확하게 구분해 낼 정도의 수준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오히려 같은 시대에 일어난 신유학의 등장은 전통적 우주론의 기본적인 교의들을 재확인해 주었으며, 이러한 경향이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지니고 전파되었다. 기존의 우주론에 대한 충분한 수정은 17세기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⁸⁾

明末清初의 시기는 기존의 전통적인 우주론이 본격적으로 비판에 직면하면서 실질적인 수정이 가해진 시기로서, 天文曆算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17세기의 학자들은 종래의 曆法의 상수와 주기가 象數易學에 근거해 도출되었던 것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자주 改曆이 이루어지고 또한 天文曆算이 퇴보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종래의 전통적인 曆法 계산이 易의 형상과 律管에 기초해서 이루어졌던 사실에서 찾았다. 즉 그들은 상수학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조화와 감응의 질서를 추구했던 전통적인 천문사상을 벗어나서 과학지식으로서의 天文曆法을 증시하는 경험적 학풍을 좋았던 것이다. 이런 면에서 청대의 천문학적 사고에서 자주 거론되었던 주제로 주목할 만한 점은 불확정성을 우주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인식하고 또한 그에 상응하는 부정확성이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식체계로 편입되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관찰을 열심히 하고 계산을 정확하게 해도 천체운행의 변칙적인 현상은 결국 계산치와 실제 현상 사이의 불일치를 낳는다. 결국 영원한 천문학 체계의 완성은 요원한 희망일 뿐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청대 초기의 사

상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청대 초기의 학자들이 천문학적 변칙들에 대한 인지에서 그치지 않고 그로부터 우주론적 결론들을 도출했던 것이다. 즉 청대의 천문학자들이 천문학적 변칙과 관측의 오류로부터 추론해 낸 우주론적 관점은 천문역산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예측과 현상과의 미세한 오차는 항상 존재할 것이며, 그러한 오차는 더욱 커져 결국엔 改曆을 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예측과 실제 현상과의 불일치는 전적으로 인간의 한계 탓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천문현상에는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불규칙성과 아무리 노력해도 헤아릴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주가 항상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항상성의 개념에만 집착한다면 세상의 질서를 바로 이해할 수 없다고 보게 되었다. 결국 많은 청대 학자들은 그들이 인지한 천문학적 이변들을 불확정적인 것으로 규정했으며, 우주의 패턴은 본질적으로 불규칙적이고 심지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런 이변들을 예측가능한 질서로부터의 이탈로서뿐 아니라 그것 자체를 우주의 근본적인 질서를 구성하는 요소로 간주하였다. 이런 관점은 기존의 曆算家들에 의해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기는 하였으나 漢, 宋代 우주론 연구자들의 세계관과는 반대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明末清初의 학자들이 제시했던 새로운 우주론적 질서에서는 엄격하게 정의된 경계의 구획을 부정하는 상당히 급진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었다. 과거에 漢代나 宋代의 학자들이 『周易』에 근거해 구성해 낸 우주론 체계는 종종 현실의 시간단위를 매우 엄밀하게 규정하곤 하였다. 邵雍이 『皇極經世書』에서 보인 元會運世의 시간단위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으며, 의학에서도 이런 면은 『內經』 이래로 특히 運氣이론과 같은 경우에 있어 주된 학술적 전통이었다. 그런데 16세기경에 이르러서는 일부 학자들이 그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이런 관점은 기존의 이론들이 담고 있었던 생성과 변화의 질서에 대한 개념들은 인정하면서도 그 질서를 불연속적이고 엄격하게 정의된 시간적 변

8) John B. Henderson 저. 문중양 역. 중국의 우주론과 청대의 과학혁명. 서울, 소명출판, 2004. pp. 133-141.

화의 단계로 계량화시킨 것에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다. 즉 그들은 자연의 변화가 일정한 질서를 보이는 한편으로 서서히 점진적으로 그리고 불규칙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면이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런 비판적 관점을 지닌 초기 인물이었던 王廷相은 1년을 陰의 달과 陽의 달로 나누는 구도를 비판하였는데, 이와 같은 구도는 단지 易의 象과 數로부터 추론된 것일 뿐 실제적인 음양의 패턴을 연구하여 얻은 진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았던 것이다. 明代 말의 呂坤(1536-1618), 江永(1681-1762) 등도 이와 부합되는 논의를 펼치면서 자연에는 엄밀한 시기구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불연속적인 갑작스런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王夫之 역시 陰과 陽의 범주로 나누는 명확하고 엄밀한 비율의 확정에 의문을 표하였는데, 그에겐 이분법적으로 나뉘어 있는 거의 모든 우주론적 어휘들, 즉 天과 地, 理와 氣, 陰과 陽 등이 서로 내적으로 얽혀 있어 어느 것 하나도 다른 대응물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질 수 없는 것이었다.⁹⁾

2) 明末清初 시기의 象數學 비판

明末清初의 시기에는 전통적인 우주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전통적인 우주론과 그 맥을 같이 했던 易學체계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가해졌다. 이런 흐름을 주도한 학자들은 漢, 宋代의 상수학적 易學체계에 내재되어 있는 우주론적 요소들을 정밀한 문헌학적 방법론을 통해 분석하면서 그 사유체계가 지니고 있는 모순들을 폭로하고자 하였다.

본래 전통적인 상관적 사유에 기반한 우주론의 문헌적 출처는 대부분 漢代에 가해진 주석들과 관련된 고전적 문헌이었다. 전통적인 우주론이 본격적인 비판에 직면했던 明代 말 이후로 당시의 정형화된 우주론의 문헌적, 철학적 뿌리를 추적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진 학자들은 이러한 고전문헌들에 주목했을 것이다. 그들은 전통적인 우주론이 고전문헌에 대한 체계적인 재해석 내지는 왜곡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일 수

있었다. 즉 특히 그 흐름이 심화된 시기인 清代의 학자들은 최초의 경전 원문에 담겨 있었던 순수한 고전적 내용과 시대가 흐르면서 원본에 첨가되어 들어갔거나 해석으로 부연된 것들을 실증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내고자 하였다. 또한 그들은 문헌학 면에 있어서의 주된 관심을 『書經』과 『周易』에 두었는데, 『書經』과 『周易』은 漢代와 宋代의 우주론 연구자들이 그들의 우주론적 체계를 구성하는 데 가장 널리 응용했던 고전문헌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清代 학자들이 이러한 경전에 주된 관심을 두었으므로 그들은 그러한 문헌에 담겨 있는 漢, 宋代의 우주론에 도전할 수 있는 문헌적 근거를 잘 갖추게 된 것이다. 이런 작업을 통해 清代 학자들은 漢代의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종합적인 주석작업이 서로 관련성도 없고 배경도 다른 이질적인 고대문헌의 내용들의 혼합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물임을 밝혔던 것이다. 清代의 주석가들은 天, 陰陽, 그리고 五行과 같은 중요한 용어들의 전거에 대해서도 더욱 엄밀하게 문헌학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런 용어들이 『書經』 등에 언제 처음으로 나타났는지를 조사함으로써 애초에는 우주론적 개념들이 아니었으나 후대의 주석가들 즉 漢, 宋代의 학자들에 의해 우주론적 개념으로 변모되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이와 같이 清代의 학자들은 고대 이후로 五行 등에 덧붙여진 개념들의 틀을 깨면서 전통적인 우주론적 사고의 토대를 허물기 시작하였다.¹⁰⁾ 이런 흐름에 있어 대표적인 저작이라 할 수 있는 胡渭의 『易道明辨』과 黃宗羲의 『易學象數論』의 상당 부분은 宋代의 신유학적 우주론이 그들이 이단적이라고 여겼던 문헌에 근거하고 있는 우주론적인 도식과 상수학적 개념들을 얼마나 많이 포함하고 있는지 추적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넓은 차원에서 신유학적 전통의 해체를 통해 다른 모든 이단적인 것들과 순수한 우주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하의 내용에서 이런 사상적 흐름을 이끌었던 王廷相, 王夫之, 黃宗羲, 胡渭 등 대표적 학자들의 학술주장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明末清初 당시의 비판적 우주론 및 역철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이해하고자

9) John B. Henderson 저. 문중양 역. 중국의 우주론과 청대의 과학혁명. 서울. 소명출판. 2004. pp. 271-275.

10) John B. Henderson 저. 문중양 역. 중국의 우주론과 청대의 과학혁명. 서울. 소명출판. 2004. pp. 182-185.

한다.

(1) 王廷相¹¹⁾

王廷相은 明末清初의 비판적 우주론의 선두에 섰던 인물로서, 그는 기존의 우주론적 용어 및 개념들을 가장 철학하게 수정한 인물로 볼 수 있다. 그는 漢宋代 우주론자들이 사용했던 거의 모든 우주론적 용어들의 본래의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書經·洪範』에 나오는 ‘五行’이 우주론적 의미를 지니지 않았으며,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적절히 관리해야 하는 다섯 가지의 물적 요소의 의미를 지닌 용어였다고 파악하였다. 五行 중의 水와 같은 경우, 水利사업을 통해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요소로 이해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宋代的 朱熹가 『易學啓蒙』에서 五行의 相生의 개념으로 河圖를 해석하고 五行의 相克으로 洛書를 해석한 것에 대해서도 그 五行의 相生, 相克의 개념 자체를 이단적인 邪術로 여겼다. 나아가 王廷相은 五行의 개념이 단지 인간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요소일 뿐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漢代 이래 천문, 지리, 의학, 철학 등에 깊이 침투되어 있던 五行說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래서 王廷相은 五行에 四時의 연관 즉 五行의 相生의 순서에 따라 四時가 운행한다는 개념도 건강부회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는 기존의 五行說이 緯書에서 기원한 것으로 여겼는데, 즉 과거에 儒家들이 緯書를 통해 경전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緯書에 실려 있던 五行生克의 설이 부각되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런 한편으로 王廷相은 五行 간에 모종의 연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까지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며, 단지 木生火, 火生土와 같이 규정되어 있던 전통적인 相生의 순서개념을 반대한 것이다. 그가 생각하는 五行說은 五行 가운데 水, 火, 土만이 만물을 생할 수 있을 뿐이며 특히 水와 火의 두 기둥이 만물을 생성하는 기본이 된다고 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木

과 金은 水, 火, 土에서 기원하는 것일 뿐 水, 火와 함께 만물을 생하는 근본으로 나란히 둘 수 없다고 하였다. 특히 宋代 이래의 역학자들과 철학자들은 대부분 五行을 5종의 원소로 생각하였는데, 王廷相은 金과 木에 대해서는 그것이 水, 火, 土에서 비롯되는 산물로서 원소의 개념으로 생각될 수 없다고 하였다.¹²⁾

또한 王廷相은 易과 관련된 상수학적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 범주인 八卦에 대해 그것이 원래 잡다한 현상들을 여덟 가지로 분류하는 방식이었을 뿐 우주의 변화를 설명하는 포괄적인 체계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王廷相은 象數之學을 漢代 이래의 신비주의 계통의 사상으로 보았으며, 사계절의 순환적인 변화들을 陰陽의 이분법적 구도로 해석하던 16세기 당시의 지배적인 경향을 부정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태양의 1년의 운동과 같은 물리적인 원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는데¹³⁾, 이와 같은 그의 사상에는 無神論者이자 천문학자로서 실제적인 경험과 관찰을 중시하는 그의 학문적 입장이 깔려 있었다고 볼 수 있다.¹⁴⁾

(2) 王夫之¹⁵⁾

明末清初 시기의 대학자인 王夫之도 그에 앞선 王

11) 王廷相(1474-1544): 明代의 사상가이자 교육가. 河南 儀封人이며 字는 子衡이다. 進士 출신으로 여러 지역의 지방관을 지냈으며 벼슬이 兵部尙書에까지 올랐다. 사상적인 면에서 理學派의 사상에 비판적인 견해를 제기하였으며, 천문, 지리, 농학, 음률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다. 저서로는 『慎言』, 『雅術』, 『王氏家藏集』 등이 있다.

12) 朱伯崑. 易學哲學史 第3卷. 中國. 昆侖出版社. 2005. pp. 188-191.

13) 王廷相이 비판했던 陰陽의 이분법적 구도는 漢代 象數易學 중의 卦氣說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陰陽二氣의 消長을 통해 卦와 爻의 象의 변화를 설명하였으며, 나아가 卦象과 爻象의 변화를 통해 천문 상의 변화를 해석한 것이었다. 그리고 宋代역학 중의 象數之學은 다소 새로운 형식을 통해 陰陽二氣의 消長을 설명하였는데, 즉 劉牧의 河洛之學이나 邵雍의 先後天圖式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王廷相은 상수학과와의 논쟁을 통해 陰陽의 두 기운의 消長으로 기후변화의 규율을 해석하는 것에 반대한 것이다. 그는 기후의 寒溫은 陰陽二氣의 消長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표로부터 태양까지의 원근에 좌우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태양은 열의 원천이고 태양과 지면과의 거리의 변화에 따라 1년간의 기후의 변화가 있게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14) 朱伯崑. 易學哲學史 第3卷. 中國. 昆侖出版社. 2005. pp. 191-192.

15) 王夫之(1619-1692): 明末清初의 사상가. 湖南衡陽人. 字는 而農이고 號는 姜齋이다. 明나라가 망한 후 反清운동에 참여했으며, 이후 만년에는 고향인 衡陽의 石船山에 은거하면서 저술활동에 몰두하였다. 그는 氣學派의 입장에서 전통사상을 집대성하였으며, 『周易外傳』, 『讀通鑑論』, 『宋論』 등의 다수의 저작을 남겼다.

廷相의 견해를 따라 고대 이후의 사상가들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五行의 개념이 본래는 우주론과 무관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書經·洪範』에 나타난 五行의 의미는 원래 경제적인 생산활동에 사용되던 물질을 지칭한 것에 불과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王夫之는 漢代 이래의 象數易學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즉 氣化의 과정에 있어 기후의 변화 및 인물의 성쇠에 관련된 陰陽의 변역에 영원불변한 전개과정은 없으며, 아울러 사물의 변역에는 우연성이 존재하므로 京房이나 邵雍의 예와 같이 일정하게 정해진 공식으로 세계의 변화를 관찰하고 예측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陰陽의 변역에는 天道와 人事의 모든 면에 있어 寒暑의 교대와 같은 필연적인 과정이 일정한 순서를 지니고 일어나는 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한 우연한 원인으로 인한 불안정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陰陽二氣는 세계의 본체로서 그 변화과정에 있어 고정불변의 度數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漢代의 卦氣說에서는 기후변화의 순서를 陰陽의 변역의 규율로 삼고 나아가 이를 통해 일체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陰陽의 변화의 일면만을 보고 이를 전체에 적용하고자 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보았다. 즉 卦氣說은 당시의 曆을 易에 적용시키는 과정을 통해 易의 陰陽不測之理를 왜곡한 면이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王夫之는 魏伯陽의 『參同契』, 揚雄의 『太玄』, 司馬光의 『潛虛』, 蔡沈의 『疇書』 등도 모두 기본적으로 京房의 易學을 계승한 것으로 보고 비판하였다. 또한 王夫之는 宋代 圖書學派의 중요한 이론적 기초 중의 하나였던 八卦方位說도 비판하였다. 그는 八卦가 상징하는 天, 地, 風, 雷, 水, 火, 山, 澤의 8종의 상징이 그 性情에 있어 각종의 차이가 있으나 만물을 化育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서로 합해 하나가 되는 것이지 결코 東西南北의 공간적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王夫之가 생각하기에 「說卦」에서 말한 “天地定位”는 乾坤이 南北의 위치에 자리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天地二氣의 性이 각기 그 체체를 갖추고 서로 교감함을 말하는 것이었다.

(3) 黃宗羲¹⁶⁾

象數之學에 대한 黃宗羲의 비판은 사학자로서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그 원류에 대한 고찰을 통해 象數之學이 『周易』경전의 본래의 면모가 아님을 논증하는 것이었다. 그의 대표적인 저작인 『易學象數論』이 바로 이런 성격을 지닌 저작으로서, 黃宗羲는 漢代로부터 明代에 이르기까지의 易學家의 여러 학설에서 제시된 상수학적 도식들에 대해 그 원류를 탐구하면서 그 공과를 논하였다. 그의 『易學象數論』은 특히 宋代易學 중의 圖書象數之學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黃宗羲는 京房 이래의 象數之學 및 邵雍의 河圖先天之學 등이 모두 『周易』경전의 正宗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黃宗羲는 朱熹의 『周易本義』가 상수학적 도식들을 卷首에 배치하였고 후에 이 저작이 관방의 교과서로 자리하면서 역학이 다시 京房의 역학과 같은 方技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다고 보았다. 즉 그는 義理學派의 입장에서 朱熹의 『周易本義』가 圖書象數之學의 내용들을 통해 『周易』경전을 어지럽혔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을 위해 그가 제시한 근거는 河圖의 象數之學이 『周易』경문 뿐 아니라 易傳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黃宗羲는 『易學象數論』에서 먼저 河圖洛書之學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그는 宋代의 象數之學의 내용 중의 河圖, 洛書 등에 대해서는 비판했지만 儒家의 전적들 즉 『尙書·顧命』, 『論語』, 『繫辭』, 『禮記·禮運』 등에서 모두 고대에 河圖洛書가 존재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黃宗羲는 河圖洛書에 대해 薛季宣의 설을 따라 이를 上古시대의 지도로 보았다. 그가 河圖洛書에 대해 이런 관점을 지니게 된 것은 그가 『繫辭』를 孔子의 저술로 보았기 때문인데, 즉 『繫辭』에 언급된 河圖洛書가 마땅히 『論語』, 『尙書·顧命』에서 언급된 것과 상통하는 것이라는 관점을 지녔던 것이다. 이런 관점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黃宗羲는 한편으

16) 黃宗羲(1610-1695): 明末清初의 사상가. 浙江餘姚人. 字는 太沖이고 號는 南雷이다. 그는 史學에 특히 조예가 깊었으며, 천문역법, 수학, 지리, 관본학 등 다방면의 학문을 史學의 연구에 응용하는 데 뛰어났다. 저서로는 『明儒學案』, 『宋元學案』 등이 있다.

로 河圖洛書가 上古시대의 지도로서 『周易』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聖人이 河圖洛書를 통해 易을 지었다는 점을 인정하게도 되는 모순을 보인 것이다. 결국 이런 모순은 그가 易傳을 孔子의 저술로 보는 전통적인 관념의 속박 하에 있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하튼 黃宗羲는 河圖洛書를 도식화한 것은 宋代의 方士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보았는데, 즉 宋代의 道家인 陳搏에게서 비롯되어 후에 劉牧의 보충을 거쳐 儒家의 역학으로 편입되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黃宗羲는 宋代에 제기된 河圖洛書의 설은 모두 「繫辭」의 ‘天地之數’장의 본의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여겼으며, 이와 같은 비판은 『周易』경전의 본래 모습과 역대 역학가의 해석을 구별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¹⁷⁾

(4) 胡渭¹⁸⁾

胡渭 역시 清代에 기존의 象數易學의 체계를 비판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로서, 그의 대표적 저작인 『易圖明辨』은 宋代 이래의 圖書之學과 先天易學에 대한 규명을 목적으로 저술된 것이며, 특히 朱熹의 『周易本義』卷首에 실려 있는 9개의 도식을 비판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易圖明辨』에서 胡渭는 河圖洛書를 통해 八卦를 해석하는 것은 후대에 나온 학설로서 『周易』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邵雍의 先天易學은 도교의 연단술에서 나온 것으로서 또한 『周易』의 본의와 무관한 것이라고 하였다.

胡渭는 五行說이 「洪範」계통에서 비롯된 것이며 『周易』경전계통의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로 인해 그는 『易道明辨』에서 漢代의 五行說과 九宮說을 중점적으로 논했는데, 즉 이 두 학설을 圖書之學의 시작으로 보았던 것이다. 五行에 대해 胡渭는 그 이론 범주가 「洪範」에서 나온 것이지만 「洪範」중의 一三三五의 배열은 生數와 成數를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漢書五行志』에 이르러서야 五行生成之數를

논했는데, 다만 그 五行說도 결코 天地成의 이치를 말한 것은 아니었으며, 이에 따라 五行 사이의 배합은 陰陽五行家들의 설일 뿐 『周易』의 도와는 본래 무관한 것이었다고 보았다. 특히 胡渭는 東漢의 鄭玄이 五行說을 통해 『易』을 주해한 것이 宋代易學 중의 圖書之學의 기초가 되었으며, 그 밖에 揚雄의 『太玄』 중의 五行說도 또한 圖書之學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즉 宋代易學 중의 圖書之學은 戰國時代와 漢代의 陰陽五行家의 학설이 발전된 것으로서, 본래 『周易』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이 鄭玄에 의해 역학 계통으로 편입되었다는 것인데, 이런 관점은 전에는 없었던 胡渭의 중대한 주장이었다.¹⁹⁾

5. 결 론

뫼又可는 당시에 만연하던 疫病에 대해 그 病因으로 雜氣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疫病의 病因으로 기후의 이상변화를 논하던 전통적인 학설을 부정하였다. 나아가 그는 雜氣에 의한 병이 六氣에 의한 병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주장하면서 外感病의 病因으로 寒溫의 변화를 논하던 기존의 의학사상과는 다른 차원의 논의를 펼치긴 하였으나, 雜氣에 의한 병을 溫病의 틀 안에서 논하면서 溫病이 四時에 모두 발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기존에 時令의 개념적 틀에 묶여 있었던 溫病의 개념이 큰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서, 溫病의 ‘溫’의 개념이 病因으로서의 邪氣의 의미 그 자체나 時令의 틀이 아니라 雜氣가 병을 일으킴에 있어 일종의 誘因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따라서 뫼又可의 雜氣病因說이 전통적인 의학사상과는 그 틀을 달리 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가 病因으로서의 雜氣를 주로 溫熱한 기후와 관련지으면서 溫病의 틀 안에서 논함으로써 溫病의 개념이 크게 확장되면서 淸代에 溫病學이 발전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뫼又可의 학설이 이후의 溫病學의 발전을 촉진한 것은 결국 역설적이게도 일차적으로 그가 六氣의 변화를 논하던 기존

17) 朱伯崑. 易學哲學史 第4卷. 中國. 昆侖出版社. 2005. pp. 261-266.

18) 胡渭(1633-1714): 明末淸初의 사상가. 浙江德淸人이며 字는 東樵이다.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禹貢錙指』, 『易圖明辨』, 『洪範正論』, 『大學翼眞』 등의 4종의 저서를 남겼다.

19) 朱伯崑. 易學哲學史 第4卷. 中國. 昆侖出版社. 2005. p316-321.

의 病因論을 크게 약화시키고 물질적 존재 그 자체로서의 雜氣의 개념을 제기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먼저 吳又可 개인의 임상경험이 기초가 되었던 것이겠으나 학술사상 면에서 당시 사상계의 자연관 내지 우주론의 변화와 모종의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 것이다.

吳又可가 疫病的 病因과 관련하여 六氣의 개념을 배제한 것은 물론 그의 실제적인 임상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은 결국 기존에 기후의 변화를 논하던 이론체계 자체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전통적으로 의학이론에서 기후의 변화를 논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적 질서를 지니는 것이었고, 그 시간적 질서의 확정은 고대의 상관적, 상수학적 사고에 기반한 것으로서 그 변화가 비교적 엄격한 단계적인 마디를 지니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런 사고체계 내에서는 자연의 변화가 조화로운 질서를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며, 그 틀을 벗어나는 것은 곧 疫病과 같은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明末淸初의 시기에 이르러서는 이런 관념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즉 자연의 변화를 인식함에 있어 그 변화의 패턴에 본질적으로 불규칙적인 면이 항상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상적 변화는 17세기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일어났으며, 明末淸初의 시기 이후로 王廷相, 王夫之, 黃宗羲, 胡渭 등의 사상가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자연의 변화가 기본적으로 불연속적이고 그 안에 불규칙한 면이 항상 존재한다면, 이를 吳又可의 입장과 관련해 볼 때 자연의 이상변화가 곧 疫病的 원인이 된다는 전통적인 학설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될 것이다. 여하튼 吳又可는 雜氣說을 제기 하긴 했으나 이는 사실 한의학의 전통적인 이론적 기초의 틀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서 결코 의학사상의 주류에 놓일 수는 없는 성격의 것이었다. 그러나 吳又可의 학술사상이 지니는 의미를 긍정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중요한 문제는 자연의 陰陽변화의 실제적 패턴이 어떠하며 이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되며, 아울러 이런 문제가 과연 전통적인 사상의 틀 안에서 새롭게 발전할 수 있을 것

인지 그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논문>

1. 박노훈. 吳有性の『溫疫論』에 대한 고찰. 서울. 경원대학교 대학원. 2004.
2. 倪南. 象數易道論綱. 周易研究. 2003. 제4기.

<단행본>

1. 朱伯崑. 易學哲學史. 中國. 昆崙出版社, 2005.
2. 曹東義, 杜省乾 校注. 溫疫論譯注.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4.
3. John B. Henderson 저. 문중양 역. 중국의 우주론과 청대의 과학혁명. 서울. 소명출판. 2004.
4. 成無已, 注解傷寒論(傷寒金匱溫病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5. 陳立. 白虎通疏證. 臺北. 中華書局. 1994.

<전자문헌>

1. 吳又可. 溫疫論正名.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繁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